

구마모토시 현대미술관(CAMK)

구마모토시 현대미술관은 미술관이자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합니다. 구사마 야요이, 미야지마 다쓰오, 제임스 터렐,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이 관내 다양한 장소에서 건축과 하나 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품들 사이에는 저녁이면 피아노 연주회가 열리는 도서관과 어린이 놀이방, 카페 등의 공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바닥재와 4.5m 높이의 천장, 가동식 칸막이벽 등을 갖춘 거대한 메인 갤러리에서 매년 약 5 번의 기획전이 개최됩니다. 미술관은 가능한 한 다양한 세대와의 교류를 목표로,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의 소묘와 니나가와 미카의 꽃 사진, 팝 아티스트인 무라카미 다카시의 프라이빗 아트 컬렉션과 같은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실내 안쪽에 마련된 전시실에서는 지역 예술가와 공예가, 디자이너 등이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그 자리에서 작품을 제작하고 큐레이터의 지원과 함께 전시를 진행합니다.